

한국전쟁 전후 고양/파주 지역 학살사건 제보 및 문의

한국전쟁 전후 고양금정굴을 비롯한 고양, 파주지역의 학살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는 각종 제보, 제안과 문의를 받습니다. 금정굴 공대위의 활동에 후원해주실 분도 기다립니다. 그리고 공대위의 활동에 직접 참여해 주신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고양금정굴 양민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603-1 유림회관 201호

전화 : (031)967-9944, 019-265-5694

홈페이지 : haxalgy.jinbo.net / e-mail : songpu@chollian.net

고양금정굴 양민희생자 유족회

회장 서병규(031-938-4683)

총무 마임순(016-240-5717)

회비 및 후원금 납부 계좌

국민은행 096-01-0264-828 마임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개벽	918-0031	고양두레생협	919-5720
고양신문	963-2900	김광진한의원	965-3117
대명한의원	972-1003	대성석유	907-2212
동문연세소아과	812-3651	두리치과	966-1124
바이오엔트	941-1538	박세웅법률사무소	921-1400
부로농장	962-8027	서연세무법인	916-9721
셀브르	963-1330	숲속의 섬	903-3303
시인학교	906-0663	ID일산	908-7670
우리밀일산대리점	916-6677	일산내일신문	909-1415
주문진산오징어	905-7814	푸른환경개발	915-8741
P&IB	(02) 558-0210	하나로트렌스	970-2455
회산서당	918-3241	한살림고양	913-8647

이 외 고양자치연대, 울목아트, 우듬지, 경기케이블TV, 내일방송,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범국민 위원회 등 많은 분들께서 후원하여 주셨습니다.

제52주기(제10회) 고양금정굴위령제전 참가 단체

고속철도기지창공대협, 고양녹색소비자연대, 고양시민회, 고양여성민우회, 고양청년회, 고양환경운동연합, 도시연대일산모임, 민주노동당일산갑지구당, 민주노동당고양파주지구협의회, 바른선거시민모임, 버스일터, 어린이식물연구회, 일산구사암연합회, 참교육 학부모회고양지부, 전교조고양초등 / 중등지회, 전국노점상연합일산연합회, 항공대총학생회

산 자들이여, 우리를 기억하라



유족 서병규씨의 형님 교복단추
(한성상업고등학교)

박동수

박종원



심상진

이병희

이명희

때 | 2002년 10월 5일(토) 2시
곳 | 금정굴 현장, 탄현동 근린공원

주관 | 고양금정굴 희생자 유족회

| 고양금정굴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주최 | 고양금정굴희생자 제52주기 위령제전 추진위원회(고양시 제 시민사회단체)

후원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고양신문, 내일방송, 경기케이블TV, 일산내일신문, ID일산 외



산 자들이여, 우리를 기억하라

1950년 9.28 수복 후 비인간의 광기가 몰아치던 시절,
여기 고봉산 자락 야트막한 등성이, 깊은 수직 굴에서
수많은 이들이 천추의 한을 품고 죽어갔다.

순진한 농투성이, 밥짓던 아낙, 교복 입은 학생,
땀기머리 소녀, 엄마 등에 업힌 아이 할 것 없이,
두손 묶인 채 개처럼 끌려와 무차별로 죽어갔다.

빨갱이는 씨를 말려야 한다는 광풍 속에
온 집안이 박살나고, 세상이 무너지고, 우주가 사라졌다.

전선도 아닌 후방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대한민국 경찰과 우익단체들에 의해서,
순백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 구천을 떠도는 영령으로 화했다.

그리고 45년의 긴 세월이 흐른 뒤,
그 캄캄한 굴 속에 갇혀 있던 육신들이
그 후손들에 의해 반가운 빛을 보았다.

그들은 나와 외쳤다.
그동안 너무 춥고 목마르고 배고팠노라고,
우리의 원을 풀어 달라고, 우리가 편히 쉴 곳을 달라고.

유족들은 발이 부르터지도록 동문서주하며 대책을 호소했다.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혀 달라.
묘역을 만들고 위령탑을 세워 제사라도 모실 수 있게 해달라.

그러나 책임있는 당국은 야멸차게 외면했다.
고양시도, 경기도도, 국회도, 정부도, 경찰도, 청와대도
하나같이 책임떠넘기기에 바빴다.
당국은 자신의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책무도 저버렸다.

45년 만에 빛을 본 유골들은 국회 앞에서 한 모금 절규를 토해낸 뒤
서울대 병원으로 실려갔다.
긴 세월 동안 수많은 뼈들이 녹아 없어졌음에도,
최소 153명의 희생자가 확인되고, 여자들과 어린이의 뼈도 확인되었다.

1999년 경기도의회는 금정굴사건이 '경찰 주도하의 불법 학살'임을 인정했다.
그리고 위령사업 시행과 특별법 제정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건의했다.

그러나 고양시와 고양시의회는 오늘까지도 위령사업을 외면하고 있고,
국회에 제출된 특별법은 행정자치위 서랍 속에서 잠자고 있다.

1차 발굴된 유골이 떠난 쉼한 굴은
말없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고,
쉴 곳을 찾지 못한 영령들은
오늘도 금정굴 주변을 맴돌며 외치고 있다.

언제까지 우릴 이대로 내버려둘 거냐고,
우리의 억울한 원을 풀어 달라고,
다시는 우리 같은 억울한 죽음을 만들지 말라고.

산 자들이여, 우리를 기억하라고!

2002년 10월 5일

제52주기 고양금정굴학살 희생자 위령제에 부쳐

제1부 신목 제막식 "산자들이여, 우리를 기억하라"

신목 해설
제배
고천문 낭독

제2부 위령제

인사말
내빈소개
경과보고
추모노래
추도사
격려사
추모시 낭송
조사
분향 제배 헌화

제3부 만장행진

금정굴현장에서 근린공원

제4부 금정굴학살 해원곳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으니 너희 철없는
자들아, 다시는 이런 참극일랑 없도록 하여라"

행위예술가 5인이 벌리는 해원 곳은 비통하고 억울하고
잔혹하게 학살을 당한 고양시 양민들의 원혼을 달래고
구스려 드리고자 하는 제의적 성격의 공연이며, 상징적으로
당시의 학살 현장을 행위예술적 연기로 되새김질함으로써
원혼들의 영령들을 다소나마 풀어드리는 내용입니다.

행위예술가 변영환씨가 가해자가 되고, 무세중, 무나미씨가
희생자가 되며, 이수씨가 해원자, 이우충씨는 기원자가 되어
당시의 상황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킵니다.

작품내용은 <터닥기 / 삼신 모시는 제의 / 금정굴학살희생
자 해원곳 / 희생자 영령 모시기와 해원제 / 해원 서원식 / 뒤
풀이>로 구성되며 무세중, 무나미, 이수, 변영환, 이우충 님
께서 수고해 주십니다.

반드시 진실은 밝혀집니다

위령제를 시작한지 어느덧 10년째에 이르는 오늘, 좋은 일들을 마다하시고 여기까지 힘든 걸음을 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첫번째 위령제를 지내면서, 억울한 원혼들이 담긴 유골을 발굴하면서, 경기도의회와 진상규명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국회청원사업과 민간인학살 특별법 제정 서명운동을 하면서 느꼈던 많은 감정, 떠올랐던 생각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올 해는 억울한 죽음이었음을 인정할까?', '올 해는 원혼들을 편안히 모실 수 있을까?' '위령탑 하나라도 제대로 세울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고,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된다는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올 해는 또 다른 좌절이자 희망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9월 14일 시의회의 '위령사업촉구결의안' 부결은 저에게 실망감과 좌절감을 주었습니다. 발의 의원 중 12명이 자신의 입장을 바꾸면서 발의안내용도 이해하지 못했다고, 보지도 못했다고 거짓 고백한 것에 실망하였고, 더군다나 이러한 입장 변화가 금정굴 학살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협박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에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협박자들은 '6.25 당시 군/경/우익단체에 의해 학살당한 양민은 없으며 단지 50여명의 극렬좌익분자만 시대적 상황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즉결처단'했다는 거짓 주장을 반복하면서 엄연한 유골과 유품, 증언에도 불구하고 그 날의 진실을 숨기려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당시 희생당하신 저의 부친과 형들의 이름까지 거명하며 직장동맹위원장이었다, 내무서원이었다는 등 완전히 사실을 날조하면서까지 그 날의 학살범죄를 정당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비열한 행위이며, 희생자들을 또 한 번 희생시키는 중대한 반사회적, 반윤리적 행위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그 만큼의 희망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짓 주장이 강할수록 진실은 더욱 빛이 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면, 시의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것조차 이번이 처음이라서 실망보다는 희망적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금정굴은 이제 통일과 인권의 순례지로 자리매김되고 있고, 전국차원의 특별법안의 통과도 그리 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날의 진실이 밝혀지고 억울한 원혼들이 평안을 얻을 날이 멀지 않았다는 말씀을 끝으로 다시 한 번 어려운 걸음을 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양금정굴사건 희생자 유족회장 겸 금정굴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서병규

1. 고양금정굴 사건의 개요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 인민군에 의해 부산까지 밀렸던 국군은 맥아더의 인천상륙작전으로 9월 28일 서울을 수복했다. 이때 고양시 일대도 함께 수복되었는데, 수복 후에 돌아온 경찰이 고양시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은 1개월여에 걸친 부역자 색출과 처단이였다.

그러나 경찰의 주도하에 진행된 치안대 및 우익단체의 부역자 색출작업은 최소 수백 명의 무고한 양민들을 아무런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고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학살 가해자들은 일제시대 폐금광으로 사용하다가 해방 이후 버려져 있던 금정굴에서 이른바 부역자 처벌을 자행했다. 적극적인 좌익활동가들은 대부분 이미 인민군을 따라 월북한 후였고, 가해자들에 의해 빨갱이로 몰린 사람들의 대다수는 월북한 사람들의 가족과 친척, 인민군 점령시 기껏 곡식 낱알을 세는 정도의 일을 한 소극적인 부역자, 개인 감정으로 억울하게 빨갱이로 몰린 양민들이였다.

고양금정굴에서는 최소 400명에서 최대 2,000명까지 학살된 것으로 추정된다. 1995년 1차 발굴된 유골의 감정 결과, 오른쪽 대퇴골 153개, 두개골 74개, 부녀자의 뼈도 10% 이상, 10대의 뼈도 있다는 발표가 있었다. 50년간의 유골의 유실률과 어린이 및 부녀자 뼈의 유실률이 훨씬 높은 것을 감안하면 1차발굴된 유골만으로도 수백명이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

금정굴 학살사건 후 집과 일터, 길바닥에서 아무렇게나 끌려가 무자비하게 희생당한 피학살 유가족들은 친인척들의 주검을 확인하지도 못하고, 지나간 세월을 '빨갱이 가족'이라는 비난을 감수하며 천추의 한을 품고 살아왔다. 사건이 있는 지 50년, '금정굴'은 어느 누구도 갈 수 없는 곳, 결코 그날의 참상을 말해서는 안 되는 금기 중의 금기였다.

2.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운동 경과보고

- 1990.6 김양원씨가 향토사 발굴도중 금정굴의 엄청난 학살 사실을 접하고 조사에 착수. 그 후 3년간 가해자, 피해자, 목격자 등을 찾아다니며 탐문, 조사함.
- 1993. 8. 28. 지역의 5개 단체(고양시민회, 농민회, 전교조, 항공대학생회, 용마피혁노조)가 금정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결성함. 진상규명위원장에 김양원 당시 고양시민회 회장을 선임함
- 1993. 9. 8. 유족회 구성(회장 서병규, 부회장 김권, 총무 마임순 선출)
- 1993. 9. 15. 고양시의회의장을 방문하여 탄원서를 제출하려 했으나 정종득 의장에게 접수 거부당함
- 1993. 9. 20. 청원서 제출(대통령, 내무부장관, 고양시장, 고양시의회의장, 고양경찰서장)

- 1993. 9. 22. 강수립 국회의원 외 8인 고문 위촉함. 국회청원서 제출(제1차)
- 1993. 9. 25. 준비기간동안 가해자들과 경찰이 극력으로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제1회(43주기)위령제가 거행됨(제전공동위원장 서병규, 김양원. 사회:나진택) 국회의원 제정구 및 백기완씨 등 150여명 참석
- 1994. 10. 15. 제1차 자료집 발간
- 1994. 10. 23. 유족 중심의 제2차 합동위령제. 그후 국회 청원관계로 국회를 10여 차례 방문하고, 진상규명 자료조사차 고양시청, 시의회, 고양경찰서 및 경기도 경찰청 등 수차례 방문
- 1995. 9. 24. 제3차 합동위령제와 함께 발굴 시작
- 1995. 9. 25. 최초 발굴 시작 중 시청 녹지과 공익요원 수명이 작업을 강제로 중지시킴. 강력한 항의로 발굴 재개함
- 1995. 9. 29. 유골이 나오기 시작함. MBC 등 각 매스컴에 보도됨
- 1995. 9. 30. 많은 유골과 총알, 비비선, 쪽진 머리, 땡기머리 등 다수의 유품이 나옴
- 1995. 10. 2. 각계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진정서 발송(보낸 곳 : 청와대, 내무부장관, 국회의장, 경찰청장,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 의장, 시의원, 경기도 지방경찰청장, 고양시 국회의원 이택석, 고양경찰서장, 각 정당 대표 등). 무반응 또는 책임회피성 답변
- 1995. 10. 3. MBC PD수첩이 금정굴의 참상을 연속 2회(1, 2부)방영함
- 1995. 10. 4. 진상규명위원장이 CBS기독교 시사프로에서 금정굴 양민학살에 대해 대담. 연일 매스컴에 보도되면서 유족들이 모이기 시작함
- 1995. 10. 13.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유골 20여구 모시고 가서 항의함
- 1995. 10. 16. 붕괴위험과 경비문제로 깊이 17m에서 발굴 중단
- 1995. 11. 10. 탄현동 소재 원각사에서 천도제 거행. 발굴 후 48일간 유족들과 시민단체에서 당번을 정하여 주야로 유골을 지킴. 발굴 총비용 1300여만원 모금
- 1995. 11.16. 서울대 법의학 이윤성 교수께 감정의뢰 가는 도중 고양경찰서 경유하여 불법 양민학살을 항의하고 서울대 연구실에 모심. 그후 유족회의 매월개최

- 1995. 12. 22. 총리실 산하 내무 행정 심의관실을 수차례 방문하여 금정굴 양민학살을 명예회복 사안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함
- 1996. 3. 4. 내무부 거창사건 전담부서를 수차례 방문. 그후 청와대 합동 민원실, 경찰청 등 각계 각층을 찾아 다니며 활동함
- 1996. 4. 5. 15대 총선 유세시 고양시 이택석 후보는 금정굴 사건을 "누구를 위해 명예회복시켜 주겠는가? 통일이 되기 전엔 절대로 안된다"라고 발언
- 1996. 4. 6. 서울대 이윤성 교수의 유골감정 1차 보고서에서 희생자 160명 이상이며 어린이 뼈도 있을 것으로 보고됨
- 1996. 10. 12. 제4회 합동위령제 및 진오귀굿(정순덕 교수) 거행
- 1996. 12. 16. 유족회 대표가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를 당사에서 만나 사건을 설명하고 대책을 촉구하여 해결 확답을 받음
- 1997. 4. 13. 경기도의회에 금정굴 양민학살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는 청원서 제출
- 1997. 10. 22.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금정굴 양민학살 청원심사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 그러나 고양시 출신 신우근 의원의 애매모호한 반박성명으로 좌절됨
- 1997. 12. 11. 국민회의 대선 공약으로 금정굴 양민희생사건에 대하여 국회와 경기도차원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유가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합동묘소 및 위령비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로 함
- 1998. 10. 17. 제48주기(제6회) 위령제 거행
- 1998. 11. 고양 금정굴 양민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 구성(상임공동대표 : 이창복, 두봉, 서병규, 유재덕, 박종후)
- 1998. 11. 16. 이창복 전국연합 의장을 만나 국회의의 소속 국회의원들을 소개받고 유선호 의원을 찾아 청원서 및 특별법 초안 제출
- 1998. 11. 17. 청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대표의원의 서명을 받기 위해 지역구 의원인 이국현, 이택석의원을 방문하였으나 입장이 곤란하다며 서명을 거절함. 소개의원 요청도 거절
- 1999. 2. 이무영 사장의 고양경찰서 근무 기록이 유선호 국회의원의 자료요청으로 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 7년만에 공식 인정됨

- 1999. 2. 10. 금정굴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경기도의회에 만장일치로 통과됨

경기도의회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조사보고서 발간
(금정굴 사건을, 부역자를 색출한다는 명분하에 경찰의 주도로 우익단체가 세하여 다수의 민간인을 불법 학살하여 암매장한 사건이라고 잠정 규정하고, 국회와 중앙정부에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법 제정을, 도 집행부에는 위령사업(재발굴, 유골 수습안치, 위령탑 건립)을 건의. 도의회에서 이를 추인하고 결의함
- 2000. 2. 유족들과 추진위 관계자, 고양시의 계획수립지연에 항의, 농성. 시장면담.
- 2000. 3.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
(태극단과 보훈단체 대표 3명이 반대의사를 개진하고 유족과 시민단체 대표 등 다른 10여명은 직, 간접으로 위령사업시행을 촉구)
- 2000. 4. 고양시에서 반대자가 있어 주민의견 수렴이 안되고 시에서 위령사업을 추진할 경우 보훈단체의 반발로 새로운 이념 분쟁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며 경기도에 사업 시행 불가를 통보
- 2000. 6.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심포지엄 참가
- 2000. 8. 전민특위 국제조사단 금정굴 현장 방문.
8.15 양민학살보고대회 참가
- 2000. 9. 2. 고양금정굴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 2000. 9. 22. 호수공원 미관광장에서 제50주기(8회) 위령제 거행
위령사업 시행을 촉구하는 시민 가두서명운동 시작
- 2000. 11. 제16대 국회에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청원을 사시 제출(지역출신의원 4명 전원 포함. 44명 서명). '민간인학살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국회토론회 참가
- 2000. 12. 고양시의회에 위령사업 시행을 촉구하는 청원 제출.
시의회 사회산업위에서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을 다룸.
- 2001. 4. 금정굴위령사업시행촉구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열렸으나, 파행으로 끝남
- 2001. 5. 통합입법 국회공청회에 참가. 민간인학살 범국민위 및 전국의 다른 지역 유족들과 함께 전국통합특별법 입법 추진.

- 2001. 5. 28. 위령사업 즉각 시행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 시작
- 2001. 6. 25. 위령사업 즉각 시행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민족의 진정한 화해와 통일을 위한 평화대회' 거행
- 2001. 7. 25. 금정굴 후원의 밤 성황리에 진행
- 2001. 8. 4. 6. 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2001 고양지역 통일한마당 추진위에서 금정굴 학살 현장 방문
- 2001. 8. 10. '분단과 학살, 그 극복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강정구 교추 초청강연회
- 2001. 9. 22. 제51주기(제9회) 금정굴 위령제 거행.
현장에 장승조형물 설치
- 2001. 10. 22. 민간인학살 전국공대위 발족식 및 전국유족대표자회의
- 2001. 11. 5. 전국 합동위령제 및 전국유족회 재창립. 영등포산업선교회에서 농성시작
- 2001. 11. 11. '나라사랑청년회' 금정굴 현장 방문
- 2001. 12. 3. 양민학살 통합특별법 제정을 위한 한나라당사 앞 시위
- 2002. 1. 22. 통일기행모임, 전교조 서울지부 사립중등지회 선생님들 고양금정굴방문
- 2002. 7. 4. 2002 한국전쟁 피학살자 유족 증언대회
- 2002. 8. 13. 민주노총 통일선봉대, 통일광장, 재미청년동포 금정굴현장 방문
- 2002. 8. 21. 강현석 고양시장, 금정굴 방문. 참전전후회등의 반대로 올해는 어렵다는 의견 냄
- 2002. 8. 29. '학살규명특별법' 촉구운동.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사회단체협의회 출범
- 2002. 9. 14. 고양시의회 위령사업촉구결의안 부결
- 2002. 9. 17. 촉구결의안을 부결시킨 시의회, 보훈단체에 대한 경고성명서발표
- 2002. 9. 26. 여래사에서 '금정굴을 생각하는 밤' 행사를 가짐
- 2002. 10. 5. 제52주기(10회) 위령제

'보훈단체'들의 반인권성명서에 대한 반박

(지난 9월 14일 고양시의회는 전체 의원 32명 중 22명이 발의하고 사회산업위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한 금정굴희생자위령사업추진결의안을 부결시켜 사실상 불법학살행위를 옹호하는 폭거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앞서 고양시의회와 고양시장실, 기자실 등에는 금정굴사건을 심하게 왜곡하며 자기 입지를 지키기에 전전공공하는 태극단 등 보훈단체들의 반인권성명서가 나돌았고, 14일 아침에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위령사업에 찬성하는 의회와 의원을 빨갱이로 매도하는 보훈단체들의 위력시위가 펼쳐져 심각한 일부 의원의 간을 쪼그라들게도 했습니다. 이에 불쌍한 이들의 정신병 치료를 겸하여 그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그 상태가 얼마나 중증인지 밝히고 그 처방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문단 뒤의 < > 안에 쓰인 것이 반박문입니다.)

성명서

우리는 최근 고양시의회가 사건의 사실 검증조치 없이 몇몇 시의원에 의하여 고양시의회에 상정된 이른바 "금정굴 희생자 위령사업 추진결의안" 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그 부당성을 밝히면서 고양시 및 시의회의 각성과 반성을 촉구하고 고양시민과 유관단체에 사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 '사실 검증조치 없이'라고? 경기도에서는 1년에 걸친 조사를 통해 이미 불법학살사실을 인정했지만 고양시의회에서는 조사조차 할 수 없었다. 제2대 시의회에서는 조사 청원 접수조차 거부했고, 제3대 시의회에서는 만일 도의회의 결론을 인정할 수 없다면 시의회 차원에서 재조사하자는 요구를 계속 묵살해왔기 때문이다.

조사하면 진상이 밝혀지고 자신들의 입지가 무너질 것을 두려워한 당신들의 극렬한 반대와 당신들의 떼거리가 무섭거나 당신들과 한통속인 시의원들이 다수였기때문에, 당신들은 그거 들춰내봤자 이로울 게 없다고 계속 협박해오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사실 검증조치 없이'라고? 그리고 '몇몇 시의원'이라니, 32명 중 22명이 몇몇이면 얼마야 다수인가? 위상이 실추될 몇몇 유관단체는 모르겠지만, 위령사업 시행을 전폭 환영할 고양시민은 왜 끌고 들어가나? 여론조사라도 해볼까? 최근 한 조사에서는 80% 이상이 위령사업의 즉각 시행에 찬성했던데.>

1. 이른바 "금정굴 피 학살 양민유족회"측은 경기도 고양, 파주지역의 무고한 양민 1~2천명을 좌익으로 몰아 지금의 고양시 탄현동 폐 금광인 금정굴에서 집단학살했다고 주장하면서 명예회복과 위령탑 건립을 고양시 및 의회에 청원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나 증빙은 없다. 6.25를 체험하고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한 이 지역의 주민들은 오히려 1~2천명은 뭐고, 양민학살은 또 무슨 소리냐고 오히려 반문한다. 사건발생의 현장인 금정굴에서는 9.28수복 직후 경찰이 극력 좌익 분자 50-60명을 처형한 바 있다.

당시는 전시였기 때문에 경찰의 조사만으로 즉결처형이 이뤄졌던 상황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 자료나 증거가 없으니? 유족들이나 목격자는 물론 당시 경찰과 태극단원, 치안대원들까지도 줄줄이 증언했고, 발굴 당시 금정굴을 온통 뒤덮은 유골들보다 더 확실한 증언이 어디 있으며 - 당신네들 중 어떤 사람은 거기서 유골이 한 조각이라도 나오면 손가락에 장을 지킨다고 했는데, 불행히도 아직까지 그 사람이 손가락에 봉대를 매고 다닌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 피해자의 도장, 단추 등도 나왔고, 경기도의회에서는 이미 이런 증거들을 종합하여 불법학살 사실을 인정했다.

그리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현지 주민 중 하루에 20-30명씩 한달 이상 매일같이 금정굴로 끌려가는 걸 목격했다는 증인들이 여럿 있는데, 주민들이 반문한다고? 피해자들의 사상에 대해서는 유족들과 목격자는 물론 당시 치안대원으로 일한 사람까지도 "사상은 무슨? '농사 사상'이라면 또 모를까"라고 증언하는 마당에, 양민학살은 또 무슨 소리냐고?

옳거나, 일말의 양심은 있는지 50-60명 죽인 건 인정하는군. 그건 명백한 불법학살이었고. 그런데 극렬인지, 좌익인지는 따져봐야겠고, 당시 고양지역은 전선이 아닌 후방이었는데, 그렇게 사람을 마구 죽여도 되나? 당시 경찰 조사만으로 즉결 처형이 이뤄졌던 상황이라고? 당시 어느 누가 경찰에게, 더군다나 전선도 아닌 후방에서 즉결 처형을 허용했지? 당시 부역자 색출과 처단의 구실이 된 50년 9월의 '부역자색출령'에서도 3심제를 단심제로 줄이긴 하지만, 분명히 재판을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고, 이후 부역자 처벌이 극심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제정된 '부역자처벌법'은 불법 가혹행위와 불법처단 죄는 최고 사형에 처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2. 금정굴에서는 경찰에 의한 극력 좌익분자 50~60명의 처형뿐만 아니라, 9.28수복 당시 북으로 퇴주하던 좌익과 내무서원들이 대한민국 우익인사 수백 명을 집단학살한 사실도 확인한 바 있다.

< 제발 근거 좀 보여 줘라. 믿어 줄 테니까. 우익인사들이 거기서 죽었다면 지난 50년간 그 사실을 숨기고 지낼 이유가 없었을 테고, 오히려 떼땀이 밝히고 잘하면 국가유공자가 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아무도 그 유족이라고 나서는 분들이 없다.

게다가 금정굴 유골 발굴 이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바 없는데, 유골이 발굴되고 나니 왜 이런 해괴한 주장들이 나오는 걸까? 그 유구한 물타기 작전?>

3. 이른바 "피 학살 양민유족회"측은 현장 발굴에서 160여구의 유골이 확인되었다는 서울대 이윤성 법의학박사의 소견을 증빙 자료로 내세우고 있다.

< 어, 이상하다. 왜 여기서 그치는가! 시간이 촉박했는가? 아니면 삭제당했는가? 짐작컨데 유골이 가짜더라던가 이윤성박사도 문제있었다던가 하는 시비를 걸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도 너무 심하게 때를 쓰면 성명서의 품위가 떨어지는 줄은 알고 있나보다. 다음 나왔을 내용이 정말 궁금하다.

그 어떤 말로도 발굴된 유골과 유품들이 말하는 진실을 숨길 수 없다. 그러니 금정굴 학살 사실을 어떻게든 숨겨보려는 자들이라도 유골앞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을 것이다>

4. 이른바 "피 학살 양민유족회"측의 주장은 억울하게 학살당했다는 희생자가 1~2천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유가족이라고 나선 인원은 40여명에 불과하다. 과연,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나머지 유족은 어디에 있는가?

< 어, 그래도 일말의 판단력은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정말, 어리석고 야비한 질문이다.

93년에 금정굴학살사건을 공식 제기한 당시 고양시민회 김양원 회장은 이 사건을 조사하고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했다. 유족들은 지금까지 '빨갱이 가족'으로 몰려 술한 위협과 불이익을 당해왔고, 지금까지도 그 피해의식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논밭, 집까지 빼앗기고 고향에서 쫓겨난 사람도 부지기수고, 일가족 몰살당해 유족이 없는 경우도 많다. 증언자들만 있을 뿐.

그리고 주위에 대고 물어보라. 당시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형제자매가 6.25 때 죽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어디서 죽었는지 모른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뒤 또 가해자, 피해자의 후손들이 어우러져 살게 되면서 누가 다칠까봐 말 못하겠다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은지. 판나라에서 살던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우문을 던질 수 없다.>

5. 태극단은 6.25전쟁이 발발한 직후 적 치하에 있던 고양, 과주지역에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구국 지하 결사대였다.

날조된 허위로 대한민국 애국세력을 집요하게 공략함으로써 그 정체성을 부인하게 만들고 부도덕한 존재로 규정하려는 술책은 좌익의 상투적 전략전술에 불과하다.

과거 대한민국 심장에 비수를 들이댄 극력 좌익들을 명예회복시키고 위령탑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어찌해서 대명천지 대한민국 이 땅에 버젓이 나오고 이 같은 주장에 대한 민국의 고양시의회가 동조한 오늘의 상황에 대하여 우리는 너무도 어이없고, 모골이 송연해짐을 금할 수 없다. 또한 대한민국의 주적개념이 북한 괴뢰집단에서 언제부터 없어졌는지도 통탄할 일이다.

< 고양금정굴공대위에서는 태극단을 가해자로 직접 지칭한 적이 없었다.

태극단에서조차 당시 경찰이 한 것이라며 경찰이 주도한 것으로 말하고 있고, 치안대 등 우익단체가 가세한 것은 수많은 증언들이 이야기하고 있으니,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다. 태극단에 대해서는 일부 유족과 증언자들이 학살에 가담, 또는 학살을 주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고양군지> 등에서도 태극단이 9.28수복 직후 경찰이 들어오기 전 얼마 동안 고양군 내의 치안을 담당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 10일 동안에도 학살이 광범하게 일어났으니 태극단도 책임은 있는 게 분명하나, 다만 본인들이 부정하고 있으니, 더 조사해야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

공식 거론하지도 않는 태극단 이야기를 자꾸만 꺼내는 것은 도둑이 제발 저런 격이 아닌 지 심히 의심스러울 뿐이다. 그리고 군인, 경찰과 민간치안대가 당시 무자비한 학살을 자행했다는 사실은 전국에 걸쳐 수없이 드러나고 있다. 고양시만 예외라고 주장하고 싶은가? 또 불법학살된 사람들의 위령탑을 세우고 영령을 위로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이자 그 뼈아픈 과거를 반성하며 그런 야만의 시대를 끝내려는 숭고한 행위이고, 그에 고양시의회가 동조하는 것은 고양시의회도 상식을 회복해가는 증거 아닌지? 통일시대에 빛바랜 주적 개념을

부여안고 자신의 존재 의의를 찾으려는 이 안타까운 몸부림은 어떻게 보아야 할지, 참 난감할 따름이다.>

6. 건국 후 공산주의와의 투쟁에서 희생된 대한민국의 양민은 사망 25만 여명, 학살 13만 여명, 부상 23만여명, 피랍 8만5천여명, 행방불명 30만 여명, 모두 100만 여명에 이른다. 이들의 주장대로 극렬 좌익들의 희생자 위령탑을 대한민국정부가 세워줘야 한다면, 희생 양민 100만 여명에 이르는 이들의 위령탑은 북한정권이 세워줘야 한단 말인가? 6.25 전쟁 당시 희생은 전국적인 현상이었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이기도 했다.

< 숫자 계산은 좀 정확히 합시다. 좌익에 의한 피학살자 13만 + 알파만 학살이라는 이 주제에 해당하는군. 나머지는 일반적인 전쟁 피해자이고 어느 쪽에 의한 피해자인지도 정확히 알 수 없으니, 해법이 조금은 달라야 할 거다. 13만 우익 피학살자의 위령은 마땅히 남북에서 같이 해줘야 한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군과 경찰, 우익단체, 미군에 의한 피학살자의 위령도 남북에서 같이 해줘야 하고. 그게 바로 화합과 통일의 시대의 논법 아닌가. 제발 그 공한 마음 좀 버리라. 그래 가지고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다. 그리고 한 가지 숫자를 더 가르쳐주겠다.

인민군 등 좌익에 의한 민간인 피학살자는 13만인 반면에, 국군과 경찰, 우익단체, 미군에 의한 민간인 피학살자는 남한 땅에서만도 최소 60만에서 100만에 이른다는 연구조사 결과는 못 보셨는지? 이 많은 영혼들을 어떻게 하지? 이걸 시대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그것을 극복해나가는 길은 무엇일까? 그 첫걸음은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반성하면서 위령사업이라도 시작하는 거 아닐까? 그리고 마지막까지 '극렬 좌익'은 또 뭔가? 정말 근거라도 좀 대면서 이야기하라.>

우리는 과거 민족사의 비극을 바라볼 때 당시의 극한상황을 무시하고 50년이 지난 지금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이는 본질을 왜곡하는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는 행위이며, 더구나 이것을 어느 특정 집단의 이익과 한풀이로 이용하려는 반대민국의 음모와 작태를 철저히 반대한다.

아울러 시류에 편승하여 부화뇌동한 고양시의회의 무분별한 처사에 대하여 통탄을 금할 수 없으며 즉각적인 시정과 각성을 엄중히 촉구하는 바이다.

<그런 극한상황이 또 일어난다면 우린 또 그렇게 난도질을 해야 하나? 그런 상황에서도 그러지 않도록, 또 그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라도 다시 새기고, 또 새겨야 하는 일 아닌가? 이 위령사업으로 누가 이익을 얻지? 편승, 부화뇌동, 무분별이라니, 이제 갓 출범한 시의회에 대한 너무 심한 모독 아닌가? 오히려 당신들의 이런 협박에 굴복하여 소신을 번복하고 결의안을 부결시킨 시의회는 결과적으로 불법학살을 정당화하는 천추의 명을 지게 됐는데, 그 책임은 누가 지지? 제발 이성을 좀 찾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길을 모색해봅시다. 다 살자고 하는 것인데.>

2002년 9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고양시지회 / 대한민국전물군경유족회 고양시지회 / 대한민국전물군경미망인회 고양시지회 / 6.25참전 태극단동지회 생존단원 일동 / 제향군인회 고양시회 / 무공수훈회 고양시회

<심각한 증증 장애로 중대 치료를 요하는 단체들이 조금씩이라도 줄어들어 가기를! 이러다간 정말 도매금으로 학살자, 학살 옹호자가 됩니다. 함께 삽시다.- 이상 고양금정굴 공대위>

추가 증언자료 (녹취록 정리)

1. 정○○

(현 81세. 당시 치안대원. 금정굴로 끌려가는 대열을 목격)

- 서른 넘었지. 지금이 여든 하나(81세)니까.. 서른 넘었지...
- 다 알지... 모르는건 아니지. 그 놈들한테 잡혀서 일도 많이 하고... 아이구...
- 그럼. 협조를 해야지. 안 하고 어떻게 살어
- 경찰이 먼저 들어왔어요. 우선 경찰이 먼저 들어왔지...
- 응... 우리가 경찰하고 치안대 하고 합쳐서 치안을 했는데... 적색을 잡는 게 조건이었지. 진짜 적색은 안 죽었어요. 진짜 적색은 도망을 갔지. 설마 어떠랴? 설마 어떠랴... 여편네 하고 자식 놔두고 들어갔던 거지... 갔다 나올 생각했는데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 가족을 조지는 거지. 인자.. 무슨 짓을 했냐 그러면서 두들겨 패가며... 난 아무 것도 모르는데요.. 그러면... 대응하는 여자가 많았던 말이에요. 그러니 데려다 때려패서 없었던 말이야. 그런데 난 지금도 이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 애가 무슨 죄가 있느냐... 자식이 무슨 죄여? 애를 어디 고아원에다 맡겨? 어디 맡길 데가 있어? 그러니 애를 업고 이렇게 온단 말이야. 첨엔 철로길로 이렇게 오더라구. 매지도 앓고 세워가지고 오더라구. 빨리 나가! 이 새끼들아... 그러니 철로 길 앞에 사니까 볼 수 밖에... 난 금촌으로 데려가는 줄 알았더니...(표정이 어두워지심) 그게 아니더라구... 그리로... 아이구...(금정굴 구덩이를 말씀하시는 듯)
- (금정굴엔) 6.25 전에 그 전에 가봤었어요. 직선으로 이렇게 파 내려가서 사람으로 치면 10길.. 그 정도 되더라구요. 나무 하러 가서 보면 이렇게 까맣게 내려다 보이더라구. 그래서 6.25 나고 그 짓을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가봤어요. 그랬더니 내 길은 1길 반... 응... 글썽 그러니까 자꾸 사람 죽인거랑 흠이랑 해서 그 만큼 메꾼거지.... 그래서 보니까 내 길로 1길 반.. 2 길은 안돼... 근데... 1길이라도 나오진 못해요. 어떻게 나와? (안쪽이) 뻘뻘한데... 뭘 잡고 나와....
- 세 번쯤. 한 (한번에) 열 명... 열 다섯 명쯤... 그냥 그렇게 끌고 갔어. 애 업고...
- 애길 들으니까 다른 지역은 전부 강변 가에 끌려가서 많이 죽었대... 물이 있으니까..

2. 정○○

(당시 고양 경찰서 유치계 근무. 경찰서로 연행된 사람들에게 대한 상세한 증언.)

- 근데 죄 짓고 간 사람들은 그거 한데... 아무 죄도 없이 가서...
- 경우회 가보면 내가 입교한 연도부터 전부 다 나와요. 이번에도 경우회 날에 나와달라는데 그게 다 나와요.... (이무영 서장 채적 증명은 없다고 안 떼어준대요..) 그럴 리가 있나.. 그 기록이 다 있을텐데...
- 어... 난 이무영이가 서장이었던 것만 알지... 아침 조회 못나가거든. 맨날 유치장에만 근무하니.. 뭐 애길해보길 했나...
- 그래 마을 치안대지. 말하자면 빨갱이라고 해서 잡아다 때리는 거지. 물 달라니까 다른 데로 가래. 그래서 내가 뭘 잘 못했어. 물 한 잔 달라는데 하니까. 누가 그냥 떠다 주라구.

그래 물 뜨러 가는 사이에 나도 뛰어 들어갔지. 삭시(색시)를 빨개(발가) 벗겨서... 처년데... 한 20여 살 먹은... 나체를 맨들어서 디리 때리는데... 그냥 뭐 안 찌른 데 없이.. 그래 이 쪽 사람들도 참 나쁘다는 거야. 그러면서 너 인민군들 허고 얼마나 좋아지냈냐 고 그 처녀 더러... 그거 뭐 사상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 말야... 그래 뛰어 들어가서 “니가 뭐 사복 경찰 관이냐. 이게 뭐 하는 짓이냐”하면서 굴뚝에 벗어놓은 옷을 주면서 열린 입으라고 말이야. 그러니 피가 낭자하고 말야... “야! 강 형사 들어와” 그랬더니 푹푹 뛰면서 “아! 이 놈들이 사람 죽였다”고 말이야. 그렇게 맞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3-4 사람. 그래서 우리가 포승줄로 묶어서 경찰서로 넘겼어요. 그리곤 며칠 안돼서 군경 합동수사본부에서 야단나서... 맞은 사람들이야 뭐 나왔고... 때린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지... 그때부터는... 그렇지 않았으면 사람 많이 죽었세요. 아유...

-거기서 근무를 하는데 보니까 유치장에 인계를 받으러 들어가니까. 유치장 감방이 요만 합니다. 그냥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젊은 색시나 늙은 총각이나 전부 때려넣은 거야. 유치장이라는 게 많아야 7-8명 들어가는 데를 뽁뽁하게 사람들을 넣었다 이거야. 인계를 받으려면 사람들을 하나 하나 호명해서 확인하고 인계를 받아야 하잖아. 그걸 부르는데 한 3-4 시간을 걸렸을 거야.

-물을 못주게 하니까 난중엔 오줌을 받아먹어요. 남자야 그럴 수 있지만 여자는 오줌 받아 먹기가 참 거북하거든...

3. 전월성

-그 당시에는 그 동네에 개인 감정으로다가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아. 그때 당시에 나이 몇 살이 됐다고...

4. 파주 산남리 황매동 학살 관련 증언

김재환

-여기서 72명 죽었다는데... 72명... 글썽 뭐... 나도... 모르지만 많이 죽었다고.... 6.25때 왜 그렇게 많이 죽었냐하면 말야... 거 치안대에서 개인 감정으로 죽인 거야... 그렇지. 그 일 가족이 뭐냐하면... 지금 저 신 서방네... 몽땅 죽었지. 17명이 죽었는데...

신용하, 허준, 신화자 등 신씨 일가

-거기 벌판에서만 죽은 게 아니라. 여기 동산 지금 집 짓는 그 골짜구니에서도 많이 죽었어요. 가족들 다 몰살한 걸 누가 찾아가요? 일 보라고 끌어가서는 그 큰아버지는 저기 황바람 (황매동 갯벌?) 물탱이(모탱이?) 거기다 갖다가 돌아갔다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누가 죽었다 누가 죽었다 그러는데. 우리 큰아버지 신발까지 벗겨온 사람이 있데 요. 그러는 데도 말도 못했어요.

-앞에서 방문턱에다 끌어내 놓고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죽이냐’하니까 ‘말 말고 그냥 죽으라’고 총을 쏘니까 여기(어깨)를 한 대 맞으니까 그냥 죽어요.